



Analyst 박한샘 · 02-3773-8477 · sam4.park@skc.co.kr

# Issue Comment

- ✓ ITC,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대상 영업비밀 침해 소송 승소
  - ✓ SK 이노베이션 미국 공급 차질 불가피. 남은 기한은 60 일
  - ✓ LG 화학. 공급사 전화+배상금 가능성 호재에도 코나 risk 상존

LG 화학 코나 불활실성 속 ITC 영업비밀 침해 판결 승소 호재

ITC | G 화학 SK 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승소

- FTC(국제무역위원회)는 LG 화학이 SK 이노베이션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최종 판결로 10년간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결정
  - 결정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효력 발생하며 수입 금지 대상에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배터리 완제품/셀/모듈/팩 등이 모두 포함
  - 다만, 미국 내 생산 목적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허용된다. 예컨대 포드(Ford)에는 4년 / 폭스바겐에는 2년의 공급 유예기기이 주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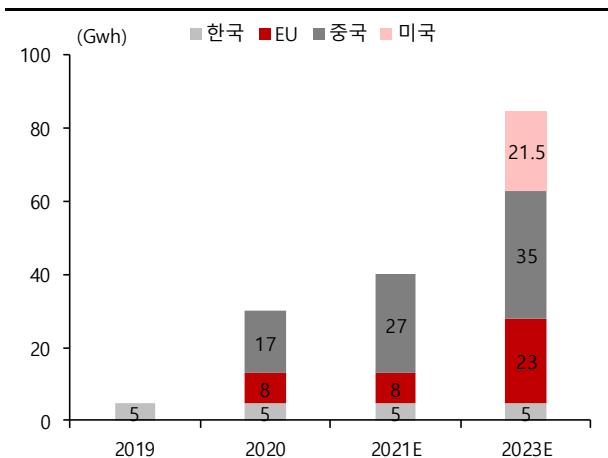
## SK 이노베이션 미국 공급 차질 리스크와 남은 60 일의 기한

- SK 이노베이션은 현재까지 1,2 공장을 포함해 총 3 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결정. 남은 건설 진행에도 영업 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
  - 차량의 리아프티임이 6~7 년인 것을 감안, 포드 F150은 2년 반, 폭스바겐 ID.4는 6 개월 정도만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수주금액은 약 20 조원으로 알려져 있어, 전체 수주 예상 잔고 70 조원(550Gwh)의 28%에 달하는 수준
  - ITC 특허침해 소송, PTAB 소송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 또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 기간에도 수입 금지 효력은 유효
  - 60 일 이내의 대통령 거부권 및 양사 협상이 효력 중지의 해결안. 협상 시 2 조원 이상의 배상금 예상돼 SK 이노에겐 향후 추가 투자여력 훼손

LG 화학 승수 공급사 전환 가능성 + 배상금 회자에도 안고 가야 할 코나 리콜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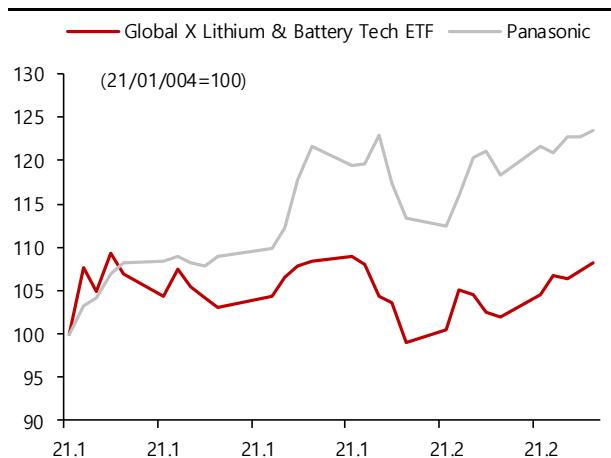
- 이번 조치로 포드와 폭스바겐이 타 배터리 업체로 공급 전환 시 LG화학, CATL, 삼성SDI 등 주요 Top Tier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 예상
  - 다만, 2월 10일 ITC 결과에도 지난 주 Panasonic 및 글로벌 배터리 관련 ETF의 주가 변동성은 1% 아래로 저한. 구체적인 입찰 발표에 주목
  - LG화학은 이번 ITC 판결은 미국 M/S 확장 기회 및 배상금 확보 시나리오 모두 긍정적. 다만, 최근 코나 화재의 리콜 불확실성이 주기에 부담

SK 이노베이션 증설 계획: 2023년에 21.5Gwh 미국 생산



자료: SK 이노베이션, SK 증권

## 배터리 관련 ETF 및 파나소닉 주가 흐름: 큰 변동은 제한



자료: Bloomberg SK 증권

## 문제의 발단과 현재

과거 2017년 시작되었던 전직 직원에 대한 기처분 소송이 발단이 시작이다. 이는 2019년 LG화학이 기처분 소송에 승소가 결정됐다. 이후 같은 해 LG화학에서 나간 인력이 영업비밀을 SK이노베이션에 유출했다는 '영업비밀 침해 1건'을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리웨어 연방법원에 동시에 제기한다. 2019년 9월에는 인력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 소송이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 소송 건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2020년 2월 ITC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파소 판결(예비결정)을 내린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고 최종판결은 10월 5일→10월 26일→12월 10일→2월 10일로 3차례 연기된 이후 예비결정을 인용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LG화학의 승기를 들어줬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에서 10년간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료와 배터리 완제품/셀/모듈/팩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미국 내 생산 목적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한시적으로 허용돼, 포드(Ford)에는 4년 / 폭스바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제부터는 전기의 가능성과 산업 전반에 미칠 중요해졌다. 또한 아직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동시에 진행됐던 ITC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LG→SK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7월 19일, SK→LG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11월 30일에 ITC 최종 결정이 예정돼 있다. PTAB '특허 무효'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의 신청 8건은 올해 1월 부로 모두 각하, LG화학이 신청한 1건이 아직 진행 중이다. 델리웨어 지방법원 소송은 LG화학이 소송을 재개하면 된다.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특허 관련 송쟁 타임라인

연도	날짜	내용
2017	Dec-17	LG화학, 대전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전직직원 5명 대상 전직금지 기처분 소송 제기
	Jan-19	LG화학, 대법원서 '전직금지 기처분 소송' 승소(2년 전직금지)
	Apr-19	LG화학, ITC와 연방법원(델리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인력유출 관련 영업비밀 침해소송(1건)을 제기
	May-19	LG화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 고소
	Jun-19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Sep-19	SK이노베이션, ITC, 연방법원에 LG화학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 소송(2개)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 배터리 특허 관련 2개(994파우치구조 관련 / 접착패드 관련)>
		CEO 회동 결렬 / 경찰,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LG화학, ITC와 델리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 소송(5개) <SRS® 분리막 코팅 미국특허 3개 양극재 미국특허 2개>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중요 문서 제출 누락' 포렌식 명령 SK이노베이션, 서울지방법원에 LG화학이 과거 합의 파기했다는 내용의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소송
2020	Feb-20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파소 판결(예비 결정)
	Mar-20	LG화학, PTAB에 SK이노베이션 특허무효심판(IPR) 1건 신청
	Apr-20	ITC,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로 재검토 결정
	(5~7)-20	SK이노베이션 PTAB에 LG화학 IPR 총 8건 신청
	Aug-20	서울중앙지법, SK이노베이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SK이노베이션 1심 패소
	Sep-20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10/05→10/26로 연기 발표 PTAB, LG화학 신청 IPR 1건 유효성 심사 개시
	Oct-20	ITC, 최종판결 12/10일로 재연기 발표
	Nov-20	PTAB, SK이노베이션 신청 IPR 8건 중 6건 각하
	Dec-20	ITC 최종판결 10월 5일→10월 26일→12월 10일→2월 10일로 연기
	Jan-21	PTAB, SK이노베이션 신청 IPR 나머지 두건 모두 각하(총 8건 각하)
2021	Feb-21	ITC 최종 판결 발표

자료: 각종언론, SK증권

## SK 이노베이션 미국 공급 차질과 배터리 PEER 수혜

### 1) SK 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및 미국 공급 차질

SK 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앤스킨운티에 9.8GWh 제1 공장을 짓고 있었으며(19.1Q 착공 → '22.1Q 양산 예정), 1 조 8 천억원을 추가 투자해 11.7GWh 제2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20.3Q 착공 → '23. 1Q 양산)도 발표한바 있다. 현재까지 1,2 공장을 포함해 총 3 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투자 결정되었다. 9.8Gwh 규모의 제1 공장은 현재 상반기 사운전을 앞둔 상태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영업 상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다.

현재 미국 수주금액은 약 20 조원으로 알려져 있어, 전체 수주 예상 잔고 70 조원(550Gwh)의 28%에 달하는 수준이다. 각각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벌었으나 이후의 판매 차질 및 지난 공사 투자금액에 대한 기회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포드의 F-150은 2023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폭스바겐의 MEB ID.4는 2022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차량의 라이프타임이 6~7년인 것을 감안하면 유예기간 이후의 공급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다. F-150은 2년 반, ID.4는 6개월 정도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 시장은 SK 이노베이션이 중국 충설 다음으로 PEI를 키워가는 시장으로 수입금지의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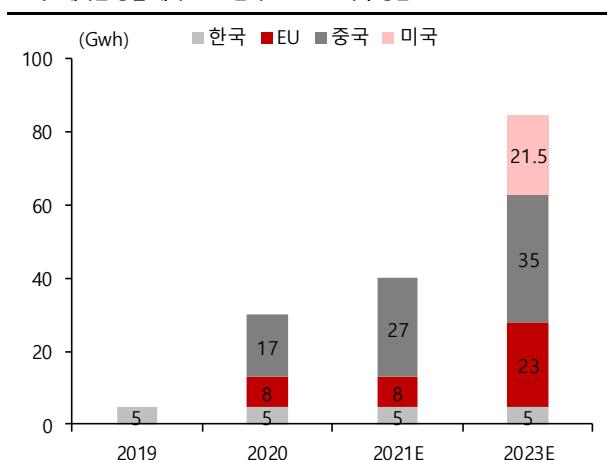
### 2) 배터리 PEER 수혜 효과

현재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은 사용량 기준 CATL(24%), LG 에너지솔루션(23%), 파나소닉(19%), BYD(7%), 삼성 SDI(6%), SK 이노베이션(5%)로 파악된다. SK 이노베이션의 경우 작년 1.7% 수준에서 5% 수준까지 상향되었다. 이번 조치로 포드와 폭스바겐이 타 업체 배터리로 전환 시 LG화학, CATL, 삼성 SDI 등 주요 Top Tier 업체들의 수혜 예상된다. 제공된 유예 기간 동안 포드와 폭스바겐은 신규 배터리 업체와의 테스트 및 협상 과정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 기대한다. 별다른 협상 부재 시 공급 사 전환 입찰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3) 글로벌 대형 배터리 주들의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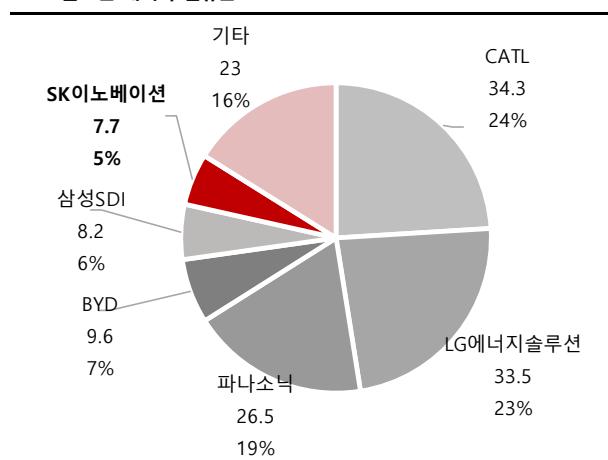
현지시간 2월 10일 ITC 결과에도 지난 주 Panasonic 및 글로벌 배터리 관련 ETF의 주가 변동성은 다소 제한되었다. 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 ETF의 경우 2/11 +0.9%, 2/12 +0.7%를 기록했으며, 일본의 주요 배터리 기업인 Panasonic의 경우도 2/11 일 연휴 이후 +0.5%의 약보합을 보이며 마감했다. 국내 대형주인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주가 흐름에 추후 변동성 확대될 여지 있으나 타 배터리 업체들은 구체적인 수혜 소식 이전까지는 주가 반영은 제한 되리라 판단한다. LG화학은 이번 ITC 판결은 미국 M/S 확장 기회 및 배상금 확보 시나리오 모두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 코나 화재의 리콜 불확실성은 주기에 부담일 전망이다.

SK 이노베이션 충설 계획: 2023년에 21.5Gwh 미국 생산



자료: SK 이노베이션, SK 증권

2020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자료: SNE 리서치, SK 증권  
주: 기업명, 사용량, 점유율 기준

## 앞으로의 전개의 가능성

앞으로의 전개는 크게 정리하자면 ① 현재의 판결의 효력 제한 및 협상 그리고 ② 진행 중인 소송의 향방이 있다.

첫 번째는 다시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현재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양시간의 협상 여부다. ITC의 결과가 나오면 6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사이에 앞선 두가지 경우가 발생하면 효력을 중지 시킬 수는 있다. 1) 일단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 2013년 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 제품 미국 수입금지 최종판결 나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소비자 권익 침해를 이유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였고 의미가 효력은 중지되었다.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주 배터리 공장은 2600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사례처럼 일자리 및 경제 피해 등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2) 두 기업간의 협상 가능성이다. 협상 타결 시 수입금지 제한 조치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SK 이노베이션은 협상 금액으로 수 천억원, LG 화학은 2.8 조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최소 2 조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올해 1~2 조원 규모의 SK 루브리컨츠도 일부 지분 매각 계획 등에 유동성 문제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나 4 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49%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코로나19 악재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배터리에 대한 추가 투자 여력이 다소 훼손되었다는 평가이다.

두 번째는 진행 중인 소송의 향방이다. 이번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간의 분쟁은 영업비밀 침해로 시작했지만,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배터리 특허 무효 소송 등으로 확장됐다. 영업비밀 침해는 판결이 났지만 ITC에 제소한 ITC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LG→SK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7월 19일, SK→LG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11월 30일에 ITC 최종 결정이 예정돼 있다.

PTAB(특허청 산하 심판원) '특허 무효' 소송은 SK 이노베이션의 신청 8 건은 올해 1월 부로 모두 각하, LG 화학이 신청한 1 건이 아직 진행 중이다. 9/30 조사가 개시되어 올해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델리웨어 지방법원 소송은 지금은 중지된 상태이나 LG 화학이 소송을 재개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연방지방법원은 PTAB의 결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SK 이노베이션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를 하는 경우이다. 다만, 항소하는 기간에도 수입 금지 효력은 유효하며 양사 간의 소송이 길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 특허쟁송 구조 관련 기관 및 구조



자료: 사법정책연구원, SK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